



##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 갈등과 진화

장우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특임교수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1863~1938)와 그의 ‘시스템’은 세계 연기 예술사에서 중요한 가치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다지 대중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초기 형태에서 발전된 배우와 역할의 융합을 의미하는 ‘메소드 연기’가 대표적 연기술로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게 인식된다. 하지만 메소드 연기와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 간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이 20세기 초 러시아 문화예술의 격동기에 통합적 관점에서 개발됐다는 점과 현재까지도 수많은 실험과 수정·보완을 통해 진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스템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그 과정에 갈등과 타협, 수용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 ‘판에 박힌 연기’를 하는 배우들

스타니슬랍스키는 당대 유명 배우들의 연기를 지속해서 관찰하고는 분노했다. “어째서 배우들은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판에 박힌 연기를 하고 있는가!” 그는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와 일그러진 표정, 의미 없이 하늘로 뿜은 두 팔은 배우들이 가지지 못한 정당성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연극사 혹은 연기 예술사에서 수많은 배우 훈련법과 연기술이 존재하지만, 배우들은 종종 무대와 삶에서 길을 잃곤 했다. 이들의 예술 작업, 즉 역할 창조 과정이 추상적이고, 또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앓아간 신께 분노하며 오열하는 연기를 펼치는 배우가 어떤 날은 관객에게 최고의 연기라는 찬사를 받는가 하면, 다른 날은 부풀려진 명성이라며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한다. 비난받은 이유는 명확하다. 그날 먹은 아침 식사로 위장에 탈이 났고, 객석 맨 앞줄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평론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그날은 ‘산’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 (출처: www.aif.ru)

예술은 추상적이며, 예술 작업 과정을 체계화 혹은 일반화할 수 없다는 생각에 스타니슬랍스키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배우 개인의 상태와 주변 환경의 변칙성에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체계적 접근법과 훈련을 통한 ‘배우의



기술'이 필요하며, 또 이를 획득하기 위한 훈련 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배우를 위한 연기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스타니슬랍스키는 모든 분야의 예술은 물론 철학과 종교, 문학 그리고 심리학의 다양한 개념과 방법론을 고찰했다. 그 결과로 습작, 보고서, 실험 등의 의미를 내포한 에튀드(etude) 개념을 추출한다. 즉, 배우의 역할 창조와 정서 구현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즉흥 상황극인 에튀드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에튀드는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 '자신', '타인', '역할'에 대한 작업의 도구로 단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사용된다. 배우는 에튀드라는 반복된 실험을 통해 무대에서도 역할을 위한 정서를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에튀드 작업은 극단, 학교, 스튜디오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며,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기에 예술 교육자이자 실험을 주관하는 과학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 하나의 공간과 두 개의 문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초기 훈련법이자 메소드 연기의 기초가 된 것은 '정서 기억법'이다. 정서 기억법이란 배우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블록화하여 역할 창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기억을 에튀드를 통해 구체화하고, 역할과 역할의 주어진 상황과 연결하여 진정성 있는 정서를 유도하는 방식이 정서 기억법의 요지이다. 실제 배우의 기억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기 때문에 정서 기억법을 통한 연기는 매우 사실적이었다. 또한 반복 연습을 통해 원하는 순간 특정 정서를 유도할 수 있기에, 이는 일관성 있는 정서 연기로 연결될 수 있었다. 배우들은 이전에 과장되거나 '판에 박힌 연기'와의 결별을 비로소 선언할 수 있었다. 정서 기억법은 안톤 체호프의 희곡들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으며, 이는 러시아 사실주의 연기의 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중심인 모스크바예술극장의 핵심 배우인 프세볼로트 메이예르홀드(1874~1940)는 스타니슬랍스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그는 정서 기억법

이 역할의 사실적 정서를 유도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역할을 수행한 이후 연합된 배우와 역할의 기억과 정서의 분리가 어려우며, 이는 배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 개인들의 역할 창조의 회복력을 근거로 메이예르홀드의 의견을 바로 수용할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메이예르홀드는 모스크바예술극장을 나와 모스크바 근교에서 작은 극단을 만들고, 스타니슬랍스키와는 반대로 배우 개인의 심리(기억과 정서)를 배제한 '신체' 중심의 방법론을 창안했고, 그 결과 생체역학이라는 배우 훈련법을 개발했다. 그의 방법론에서 핵심은 배우의 신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또 이를 회화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게 훈련된다면, 신체와 움직임만으로도 관객에게 필요한 서사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이예르홀드는 다루기 힘들고 위험한 배우의 심리가 아닌 가시적이고 통제 가능한 '신체' 중심의 연극, 구성주의 연극 작업을 이어간다.



<갈매기> 대본을 낭독 중인 모스크바예술극장 단원들(사진 중앙 왼쪽은 스타니슬랍스키, 오른쪽은 안톤 체호프, 사진 맨 오른쪽 앉아 있는 사람은 메이예르홀드이다) (출처: histrf.ru)

스타니슬랍스키가 진정성 있는 연기에 예술을 위해 배우의 기억을 활용하는 '심리' 중심의 사실적 연극의 진정성을 추구했다면, 메이예르홀드는 '신체' 중심의 회화적이며 조건화된 연극(일상과 구분되는)의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 둘은 전혀 다른 형식과 목표를 가지고 연극 작업을 이어가는 듯했고,



둘의 갈등은 동시대인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다.

## 환상과 사실의 통합

예브게니 바흐탄고프(1883~1922)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제자이자 시스템의 교육자였으며, 메이예르홀드의 동료였다. 그는 이 갈등을 다른 시각으로 이해했다. 연극이 가져야 할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은 사실 하나의 방에 들어가기 위한 다른 두 개의 문에 지나지 않았다. 심리 혹은 신체 중심의 연극과 배우 훈련은 아주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통합된다고 생각했다. 심리는 신체를 자극하며, 또 반대로 신체는 심리를 자극하여, 이 둘은 상호 작용한다. 핵심은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창조하고 핵심이 되는 정서에 접근하고, 다시 반대로 역할에서 벗어나 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흐탄고프는 심리와 신체, 더 나아가 삶과 연극, 그리고 희극과 비극의 통합을 목표로 연극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결합을 주장하며 ‘환상적 사실주의’라는 연극의 방향성을 만든다. 또한 심리와 신체, 배우의 상상, 즉 상징적 이미지의 활용을 통해서도 진정성 있는 연극에 접근하는 또 다른 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배우가 역할이 인식하는 주관적 현실을, 예를 들면, 너무나도 커져 버린 상징적인 의자를 상상함으로써 주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역할의 심리와 신체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 모두를 위한 연기예술

스타니슬랍스키와 메이예르홀드, 바흐탄고프까지 이어지는 심리, 신체, 상상 중심의 연기 훈련법 혹은 사실주의, 구성주의, 환상적 사실주의 연극은 동시대인들에게 종종 서로 다른 것들의 충돌과 갈등으로 비치곤 했다. 하지만 스타니슬랍스키로부터 시작된 가치가 있으며, 동시대성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연기예술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은 큰 자극이 되어 러시아

연기예술과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역동성을 가져다주었고, 이때 탄생한 다양한 흐름은 새로운 연극 사조들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또한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 안에 통합되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기예술 방법론을 탄생시켰다.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그 제자들에 의해 학교, 극장, 스튜디오에서 계속되는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며 현재까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은 탄생과 발전 과정에서 확인되었듯, 연기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자기성찰과 치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학적 프로그램으로 변환되고 있다. 그의 연기예술을 통해 삶과 예술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던 의도와 의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기 교육의 목표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누구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배우가 될 수 있으며, 연기 교육의 목표는 ‘개성’의 발현이다.” 

